주가	환율	금리
+8.97	-4.10	-0.01
1,328.37 (코스피지수)	959.60원 (원/달러)	4.58% (3년만기 국고채)

코스닥지수	554.70	(+15.60)
다우(9일)	11,857.81	(+7.60)
나스닥(9일)	2,311.77	(+11.78)
닛케이	16,477.25	(+41.19)
엔-달러 환율(도쿄 17:00기준)	119.40엔	(+2.91)
유로 달러 환율	1.2595달러	(+0.03)
3년만기 회사채	4.90%	(보합)
콜금리	4.48%	(보합)

감정가 190만원짜리 고흥군 임야 960평 1,290만원에 낙찰

인터넷 공매에 돈 몰린다

경매보다 대금납부 등 절차 편리
거래대금 3조…재테크수단 급부상

▲온비드=정부가 관리하는 국·공유재산 등을 처분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공매 사이트다. '온라인 비딩(Online Bidding)'이란 의미로 공매 물건 검색부터 입찰서 제출, 낙찰자 선정까지 모든 입찰과정이 원스톱으로 제공된다.

지난달 2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인터넷 공매 사이트 '온비드(www.onbid.co.kr)'에 고흥군 도양읍 장계리의 임야 960평이 공매 물건으로 올랐다. 이 임야의 감정가는 190만5천원이지만 무려 1천289만원에 낙찰됐다. 13명이 경합을 벌인 끝에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이 677%까지 치솟은 것이다.

인터넷 공매가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으며 사람과 돈이 몰리고 있다. 10일 한국자산공사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인터넷 공매가 시작된 이후 9월말 현재까지 모두 3만2천여건이 낙찰됐고, 거래금액도 3조원을 넘었다. 또 최근 1년간 공매 입찰자는 5만5천여명에 달한다.

광주·전남지역도 이 기간동안 온비드를 통해 총 3천499개의 물건이 679억원에 낙찰됐으며, 평균 59%의 낙찰가율을 기록할 만큼 공매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다양한 공매물건 온라인서 매입=공매란 정부기관이나 공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개인이나 기관에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경매 물건이 개인 채무에 의해 발생한다면 공매는 국가기관과 개인간의 채무관계에 의해 나오는 물건인 셈이다.

공매 물건은 다양하다. 특히 세금을 내지 못한 사람의 재산을 국가가 압류한 압류재산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대표적인 공매 물건으로는 아파트나 토지 등 부동산을 비롯 자동차, 골프·콘도 회원권, 주식, 건설장비 등이 있다. 심지어 동물원에서 관리하던 사슴이나 말도 찾아볼 수 있다.

현재 공매는 온비드를 통해서만 이뤄진다. 지난해 10월부터 현장 공매를 없앴기 때문이다. 오는 12일에는 아파트, 토지 등을 중심으로 484건, 741억원 규모의 서울·경기지역 압류재산 물건에 대한 공매를 실시한다.

◇안정성과 편리성 겸비=공매는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나 참가가 가능하다. 입찰 기간이 보통 2~3일 정도여서 매수 물건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분석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또 입찰보증금을 인터넷뱅킹이나 무통장입금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유찰됐을 경우 지정된 계좌로 자동 환불되는 편리성도 갖추고 있다. 대금은 1천만원 미만일 경우 7일 이내에, 1천만원 이상일 경우 60일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

◇압류재산의 권리 관계 등 꼼꼼히 따져야=압류재산의 경우 모든 권리가 말소됐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주택이나 상가 입찰의 경우 낙찰자가 금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아시아나 항공기 새옷 입는다

동체에 색동이미지·그룹 새 CI색깔 접목

아시아나항공이 새로운 항공기 동체 디자인을 선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은 26일 오전 11시 인천공항에서 새 디자인으로 도장한 B777 항공기를 처음으로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올 2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발표한 새 CI(기업이미지)에 맞춰 새롭게 고안한 동체 디자인으로, 아시아나항공을 대표하는 색동이미지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새 CI 컬러를 접목시킨 모양을 하고 있다.

새로운 항공기 동체는 흰색에 가까운 회색톤의 바탕색에 동체의 꼬리 부분에는 역동적인 색동 형상이 들어간 모습을 하고 있다. 새 디자인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자긍심을 표현하고 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인터넷 'ADSL' 상품 속도 비해 가격 비싸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중 ADSL(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망) 상품이 평균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기정통위 소속 열린우리당 홍창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산원 품질측정 결과 ADSL상품은 동급의 케이블상품보다 속도가 최대 2배 이상 느리면서도 1만~1만5천원 더 비싼 요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창선 의원은 "ADSL프로의 평균 속도는 다운로드 4.16 Mbps, 업로드 0.46Mbps로 케이블 프로의 평균 속도인 다운로드 7.28Mbps, 업로드 0.70Mbps에 한참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ADSL 라이트도 평균 속도는 다운로드 1.26Mbps, 업로드 0.42Mbps로 역시 케이블 라이트 평균 속도인 다운로드 2.33 Mbps, 업로드 0.62Mbps에 미치지 못했다.

KT의 경우 ADSL 라이트 상품의 월 이용료는 3만원으로 케이블 라이트 상품보다 약 5천~1만원 비쌌고 ADSL 프로의 경우 월 4만원으로 동급의 케이블 상품보다 1만5천원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뉴질랜드 오클랜드市 주상복합아파트

'홉슨 피오레' 국내 분양

대주건설, 20~60평형 119세대
양도·취득세 全無… 최대 강점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에서 건설중인 아파트를 국내에서 분양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투자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 대주건설이 국내 분양에 들어간 뉴질랜드 오클랜드시 홉슨지구의 주상복합아파트 조감도.

대주건설이 국내 건설사 최초로 뉴질랜드 주택시장에 진출한데 이어 현지에서 추진중인 주상복합아파트를 국내에서 분양하는 등 주택건설업계의 '블루 오션(Blue Ocean)' 개척에 한창이다.

10일 대주건설 현지법인인 '뉴질랜드 대주하우징'에 따르면 뉴질랜드 오클랜드시 홉슨지구에 들어서는 주상복합 '피오레'아파트를 국내 투자자들에게 분양중이다. 홉슨 '피오레'는 연면적 4천200평에 4개 타입, 13개 평형(20~60평형), 119가구 규모로 오는 2008년 완공된다. 분양가는 평형에 따라 1억~6억원선이다.

계약금은 총 분양가의 20%로 잔금 80%는 현지 금융권을 통해 모기지론 형식으로 대출해 준다. 국내 투자상담처는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용인 공세지구 '피오레' 모델하우스(1600-2604, 02-2021-5083)에 마련돼 있다.

뉴질랜드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거래세가 전무해 매입에 따른 세금 부담이 없다는게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또 '피오레' 사업지는 오는 2011년으로 예정된 럭비월드컵 특수로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게 대주건설측의 설명이다.

이에 앞서 대주하우징'은 지난해 뉴질랜드 오클랜드시 빅토피아지구에서 203가구의 아파트를 분양 완료한데 이어 이번 분양분을 포함해 모두 5곳의 현지 사업부지를 확보하는 등 해외시장 개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뉴질랜드 최고층 주상복합건물인 '엘리엇 타워'를 착공할 예정이어서 현지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엘리엇 타워'는 뉴질랜드 최고층인 65층(210m)규모로 들어서며, 인근에 위치한 '스카이타워'와 함께 오클랜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대주하우징 손정무 사장은 "이번에 분양되는 '피오레'는 유학과 이민이 꾸준히 늘고 있어 실거주뿐 아니라 임대사업용으로 좋다"며 "무엇보다 내년에 착공할 '엘리엇 타워'의 경우 뉴질랜드의 스카이라인을 바꾼다는 점에서 대주건설의 해외진출 성과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마늘·양파 계약재배 신청하세요

농협 20일까지 접수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용순)는 2007년산 마늘·양파의 수급안정을 위한 계약재배사업 신청을 오는 20일까지 산지농협을 통해 접수한다.

계약재배 추진물량은 마늘 전년계약물량대비 33% 증가한 1만2천t(2006년산 기준 전남 생산량 12만5천t의 10% 해당)이고, 양파는 전년 계약물량대비 15% 증가한 11만t(2006년산기준 전남 생산량 47만9천t의 23%)이다.

계약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는 고흥·해남·무안·함평·신안·영광 등 주산지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되고, 비주산지 농협에서도 희망농가가 있을 경우 전체 사업계획물량의 20% 범위내에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농협은 계약재배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 계약액의 최고 50% 미만까지 무이자로 계약보증금을 먼저 지급해 참여농가의 영농비 부담을 덜어주고, 대상농가는 내년 4월부터 농협과 계약상황에 따라 지역농협에 출하하면 된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여천NCC 5년만에 또 파업

오늘 건설노조와 출정식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여천NCC 노조가 지난 2001년에 이어 5년만에 총파업을 결의해 긴장감이 돌고 있다.

10일 여천NCC 노조는 "지난달 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조합원 662명 중 85.6%인 555명이 찬성해 어제부터 집행부 파업에 들어 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11일 오후 5시께 여수건설노조와 함께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조합원 전체가 파업에 들어간다.

노사 양측은 지난 5월부터 17차례 임단협 협상을 가졌으나 임금인상과 성과금 지급 등 핵심 쟁점안에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현재 올해 제조업 평균 임금인상율(5.56%)을 반영해 6.77%대의 임금인상과 영업이익의 5%를 성과금으로 지급해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2004년 450%, 지난해 250%의 성과금을 차등 지급해 노조가 이에 반발, 2004년 성과금을 기준해 지난해 성과금 200%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지만 영업이익이 감소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여천NCC는 지난 99년 대림산업과 한화석유화학이 공동 지분으로 설립된 이후 5년동안 종업원 수는 1천3명에서 930명으로 감소한 반면 채용은 지난해 10여명에 불과해 노조원들의 반발을 사왔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